



‘11월 11일 범국민 행동의 날’



▲ 11월 11일 ‘범국민 행동의 날’을 맞아 4만여명이 <한미 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파병 반대>에 함께했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 기고 유영재 • 6 / 이련 회원 • 홍천 조규웅 회원을 만나고 송지영 • 9 / 산행기 • 도봉산을 다녀와서 오용진 • 12 / 갑
옥에서 온 편지 박종기 외 3명 • 14 / 회원마당 • 2007 역사기행을 다녀와서 심주이 • 17 / 알립니다 • 19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1 / 이런 일이 있었
어요 • 23 / 재정보고 • 31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2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o.or.kr 이-메일 : yangsimso@hanmail.net

생명권마저 위협당하는 억압과 차별사회 생계형 노점상에 생존권보장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빈민해방이 이루어진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소서!
한참 일할 나이에 죽음으로 내몰린 한 노점상의 장례식에서 외친 절규였다.

지난 10월 12일 부인과 함께 노점을 해오고 있던 이근재씨는 고양시의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에 항거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목돈이 있어 점포나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기에 거리에 나앉아 노점을 열어야 하는 생계형 노점상들은 하루라도 장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명품도시’ ‘품격도시’니 하며 거리정화 사업으로 노점상 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올해만 해도 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점단속에 용역들을 동원했고 특히 지난 4월 16일엔 용역과 구청직원 등 1,000여 명이 새벽에 기습단속을 하며 노점기구들을 썩쓸이 해갔다.

지난 10월 9일부터 다시 일제단속에 나섰고 이 때문에 노점상들은 9,10일엔 장사를 하지 못했고 11일 일부노점상들이 노점을 열었으나 화정역, 주엽역지역에 용역 등 300여 명이 단속에 나서 이근재씨는 부인이 용역들로부터 폭행단속당하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다. 노점을 끝내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노동현장이라든가 가야겠다고 12일 집을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일손을 구하는 일터가 생각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날 소나무에 목을 매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근재씨의 죽음은 노점상을 폭력으로 단속하는 당국의 야만적 행패 때문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을 조장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땅의 빈민들은 빈곤과 폭력과 차별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다.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빈곤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국에서는 일부기업형 노점을 말하고 있지만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해도 80%이상이 생계형 영세 노점상들이다. 이러한 생계형 노점상들을 대책 없이 단속으로만 대처한다면 또 다른 이근재씨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계형노점상의 합리적인 생존권 보장책과 함께 빈곤층을 위한 생계, 교육, 의료, 취업 등 사회복지 차원의 변혁적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억압과 차별사회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노점상들 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27일 인천지역 건설노조 전기분과 비정규직 정해진 노조원이 업체의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분신했다. 노조원(전기원)들은 주 44시간 노동과 그 밖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135일째 농성을 하고 있었다. 이날도 노조원들 500여 명은 노조탄압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기위해 인천 갈산역에서 영진전업사 앞까지 행진, 회사로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을 못하고 대치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정해진 조합원이 온몸에 불을 붙이고 소리를 질렀다. ‘동지들 힘내라! 사장 구속하라!’고 외치다 쓰러졌다. 동료들이 불을 끄고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옻겨 심폐소생을 시도했으나 끝내 패혈증으로 분신한 지 7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다.

지난해 인천지역의 전기원들은 건설노조 산하 전기원 지역노조를 만들어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시도 했지만 업체들은 ‘민주노총 탈퇴하라’며 노조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갖가지 회유와 협박으로 많은 노조원들이 노조에서 떨어져 나가게 했다. 전기공사업체들이 공사단가를 낮추려다 보니 전기원들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었다. 하루 10·12시간 노동을 하는가 하면 높은 전봇대에 올라가 수 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다루어야 하는 생명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전기공사 업체들 전기원들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교섭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해진 노조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은 이어졌다.

지난 10.31일 ‘서울우유’와 우유배달계약을 맺고 일해 온 고철환(52세)씨와 박아무개(57)씨는 업체의 노조불인정 부당노동행위 등에 분노하여 ‘함께 죽자’며 고씨의 2.5톤 트럭에 ‘우유’ 대신 ‘휘발유’를 싣고 서울우유 안산공장 정문으로 차를 몰았다. ‘노조인정’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인 지 17일째 되는 날이었다. 공장 앞에 이른 두 사람은 차위에 올라가 휘발유를 뿌렸다. 곧 불길기 치솟았다. 휘발유가 거의 묻지 않은 박씨는 화를 면했지만 고씨는 3도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다. 정해진 노조원의 분신 나흘 뒤에 벌어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이었다.

고씨는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월 300여 만 원을 받는 계약을 맺고 자신의 차로 우유를 배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였다. 하루를 쉬게 되면 10만원씩 깎이는 탓에 고씨는 휴일도 없이 일을 해야 했다. 나날이 운행 시간과 거리는 늘어났지만 10년 동안 운송료는 변함이 없었다. 같은 처지에 있던 안산, 거창, 양주 등지의 우유배달차 노동자 380여 명이 지난 해 운수노조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서울우유 쪽에 지난 7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턱 달째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철환 노조원의 분신은 회사 측의 노조 불인정과 함께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대한 항거였다.

이처럼 고씨와 같은 화물지입차주나 보험설계사, 골프경기정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조차 받지 못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차별, 사회보장배제, 고용불안정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여 목숨까지 내건 극한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노조는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40여 일 쯤 투쟁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50일 쯤을 맞은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지난 10.29 새벽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다 용역경비원에게 끌려나와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위 사례들 말고도 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노동과 관련 노동쟁의(파업 등)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으며 자본과 권력은 이를 공안대상으로 하여 구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간 감옥에 갇혀 있는 대부분의 구속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관련, 생존권 보장

투쟁을 하다 구속되었다.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이다. 이들은 억압과 차별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2001년에 360만 명이 있었던 것이 2002년엔 393만 명, 2003년~460만 명, 2004년~539만 명, 2005년~548만 명, 2006년~545만 명으로 증가했고, 통계청이 2007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해 발표한 (2007.10.26) 한 것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570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만 6,000명(4.5%)이 늘어난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2.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35.5%에 이르고 있다. 물론이 같은 당국 발표는 노동계의 주장과 다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861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명이 늘어나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54.2%를 점하고 있다. 임금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50.1%로 지난해 51.3%보다 떨어졌다. 다시 통계청 조사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19만 명이 줄었지만 파견노동자는 13만 1,000명에서 17만 4,000명으로 용역 노동자는 49만 9,600명에서 59만 3,000명으로 보험설계사, 골프공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 근로자는 2.9%가 늘어났으며 계약기간조차 없는 임시직, 일일 근로노동자는 12.2%와 15.2%가 늘어나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성 비정규직이 270만 5,000명에서 290만 5,000명으로 여성 비정규직은 275만 2,000명에서 279만 6,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6~8월 평균 임금은 127만 6,00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 200만 8,000원의 63.5%에 머물렀으며 특히 파견, 용역, 일용직이 포함된 비전형근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111만 2,000원으로 더욱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월 100만 원 미만 저임금노동자의 63.1%가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보험가입율은 38.8%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비정

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차별적 대우는 바로 근로빈민의 증가와 사회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각 구의회의원의 연봉을 올해 평균 3,269만 원에서 2008년엔 5,396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파구의 경우 3,720만 원에서 6,076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들은 각종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차별과 불평 등이 심화된 게 오늘 우리 사회이다. 또 다른 예로는 대학에서 이뤄지는 총 강의의 40%를 맡고 학점도 주고 있지만 비정규 대학강사들의 대우는 대학교원의 5/1 수준이다. 이들은 연구실도, 4대 보험도, 근로계약서도 방학동안 강의도 (강의가 없으면 임금도 없음) 없으며, 10년을 강의해도 퇴직금도 없다. 몰상식을 넘어 야만적인 착취구조이다. 비정규교수노조원들은 2007년 9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악화와 불평등의 극치를 우려했었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는 오랜 논의 끝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하여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 했다. 이 법률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남용을 제한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던 우려사항은 곧바로 들어났다. 바로 이랜드 뉴코아 사태이다. 상시근로자 3,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한 노동에서 정규직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랜드 그룹과 홈에버는 시행일이 되기 전 올해 1월~6월 사이에 비정규직 계산원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외주용역업체로의 전직을 강요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한 이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6월 23일 뉴코아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대량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위에서 말했듯이 140여 일 쯤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6.30~7.20까지는 홈에버 월드컵점 점거농성을 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랜드의 비정규직조합원 계약해지를 불법해고라며 원직 복직을 명령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임금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랜드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조원의 점포점거농성을 경찰에 고발, 강제 철거를 요구했다. 끝내 검찰은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에 점거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폭력으로 강제 해산 연행하고 지도부를 구속했다. 공권력은 한결같이 사업가측에서 쟁의 노동자들을 공안대상으로 하여 구속하곤 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단체 행동을 공권력은 집시법이나 공무집행방해나 업무 방해 등 죄명을 붙여 범죄시하고 구속 기소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배가압류조치를 편들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김재협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는 사측에 51억 7,4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근의 이러한 손해청구소송을 보면 2006년 10월, 2001년 쟁의와 관련 태광산업 대한화점 노조와 노조원이 사측에 4억 원을 배상하는 파기환송

을 했고(대법원), 2007년 2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과 간부에게 2004년 파업과 관련 공사에 1억 9,308만 원 배상 판결을 했다. (서울 고법) 또한 2007년 10월 포항건설노조의 2006년 포스코 점거 농성과 관련 포스코에 10억 8,700만원 배상판결(대구지법 포항지원) 했다.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과 탄압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을 했다 해서 해고와 구속과 손배가압류 당하고 있다. 생산의 주체이며 모든 사용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자들은 그들이 창조한 부에 의해서 바로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억압 착취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비정규직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행하라.

구속노동자 등 생존권을 위해 행동하다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감사드립니다

신영복교수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서화전 때에 무려 29점의 작품을 기증하시어 성공적인 서화전의 결정적 역할을 하신 교수님께서 이번 에 다시 특별 회비 200,000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김 호현 부 회장께서 발간하는 정도 운문사의 寺報 “운문”지에 글을 게재하시어 고 원고료로 받으신 200,000원을 모두 후원회에 보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후원과 격려는 양심 수 후원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의지를 북돋워주는 감로수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신영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회원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로 귀결된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유영재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임무조정, 이라크 등의 파병,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문제 등이 협의되었다. 이 의제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군사패권적 요구를 강화시켜주고, 우리 주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문제들이다.

예상대로 이번 회의는 자주와 평화·통일의 거스를 수 없는 정세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를 거슬러 미국의 패권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

1. 기만적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을 지속하기로 합의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합의된 과제와 추진일정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미국은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추 때까지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양국은 또, “새로운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지휘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확고한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연합연습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1만인 선언과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미당국의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이 전략과 작전에 대한 한미 합의, 공격적 작전계획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미군 전력지원 보장, ‘동맹군사협조본부’ 등의 각종 군사협조기구 설치, 특히 주한미공군사령관의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 주도를 통한 공군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군 전반에 대한 작전통제권 장악, 한국군 독자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한국군 전구작전사령부)’ 창설계획의 실종, 유

엔사 강화를 통한 작전통제권 재장악 음모 등을 들어 작전통제권 환수가 매우 기만적임을 수 없이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 국방장관이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에 실질적 진전과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 것은 껍데기만의 환수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흐름을 반영하자면 기왕에 합의된 2012년까지의 작전통제권 환수 과제와 추진일정은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였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이의 준수를 확인하였다. 이는 작전통제권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하는 정세의 발전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미국의 지원전력 제공을 확인한 것도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를 노리는 공격적 작전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일이자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지휘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한 것도 선제공격 전략과 적지결전을 핵심으로 하는 중심작전을 전제로 하고 이를 구현하는 작전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구조에 기초하여 그 실행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것이다. 이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한반도 평화의 정세와 우리 국민의 자주·평화의 요구와 정세 발전을 거역하는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와 공격적 작전계획과 전쟁연습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미군사당국은 더 이상 정세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자주·평화·통

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전통제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고 작전계획도 방어적으로 바꾸며, 북침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 유엔사의 정전 임무 행정 권한을 한국군에 넘기고 대북 적대적 임무를 수행하려는 미국

양 장관은 “(유엔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를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유엔사가 존속하는 한 유엔 안보리에 한반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전 유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유엔사가 맡게 되지만 행정적인 업무 대부분은 한국군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함으로써 정전 유지기능조차 온전히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전 유지 기능과 관련한 법적, 정치적 권한은 여전히 유엔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엔사와 관련한 더욱 민감한 문제인 “유엔사를 침략억제와 전시지원을 위한 중요한 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SCM 결과 보도에서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런데 이번 SCM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게이츠 장관은 “전작권 전환 과정이나 그 이후에 유엔사와 관련한 사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유엔사의 존속과 역할을 매우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위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누가 위기 대응 결심을 내릴 것인가”를 묻고, “한미연합사가 해제되면 정전에서 전시로 전환될 때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여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 위기조치권이나 전쟁개시권 등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사실상 장악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게이츠 장관은 또, “미국은 NLL에 관한 관련국가, 유엔사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남북 사이에 결정해야 할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에 유엔사가 개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미국은 작전통제권 이후, 나아가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를 존속·강화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은 유엔사를 통해 사사건건 간섭하고, 유사시 대북 적대행위를 합법화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기구에 불과한 유엔사 강화 음모를 중단하고 유엔사를 늦어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3. 침략적 한미동맹 가속화하는 파병 재연장 합의

한미 국방장관은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 목적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라는 김장수 국방장관의 망언에 이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한미동맹이 침략동맹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것이자 앞으로도 미국이 일으키는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계속 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강요에 따라 이미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아프가니스탄에도 ‘지역재건팀’ 파견 방침을 결정했다.

미국이 일으키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피침략국 민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동시에 위협에 빠뜨리는 정부의 승미사대주의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 국민을 전쟁범죄자로 만드는 무모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재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4.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불법 전용 합법화하고 증액을 정당화하려는 제도 변경 협상

양 장관은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방위비 분담제도의 개선이란 현행 ‘총액증액’ 방식을 ‘소요충족’ 방식으로 산정방식을 바꾸고, 현물지원 확대 등 운용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정방식, 운용방식의 변경이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불법성과 불평등성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통해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미2사단 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지속적 증액을 정당화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이해’하면서,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절반 정도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인데, 단지 항목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점이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2007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미) 양측은 비용분담을 평등한 수준에 도달시키려는 목표에 동의”했다고 밝힌 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양 장관의 합의는 ‘개선’이 아니라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고, 증액을 정당화하는 ‘개악’이요 ‘기만’이다.

애초에 한미SOFA 제5조를 위반하여 지급되어 왔으며, 주한미군의 성격이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지급할 어떤 근거나 이유도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

5.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미국의 전쟁비축물자(WRSA-K) 모두 미국으로 되가져가야

양 장관은 2008년도에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자(WRSA-K)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저장하고 있는 약 13억 달러에

이르는 도태 또는 노후탄약 운반 및 폐기비용 부담을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벌이는 일이다.

이미 우리는 정밀 탄약을 개발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탄약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우리가 미국 노후탄약을 무상으로 인수하더라도 미국은 운반 및 폐기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아 이익이지만 우리는 폐기비용과 환경오염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미군 쓰레기 탄약을 돈을 주고 사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의 강요에 못이겨 1조원 안팎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대부분 쓸모없는 이 물자를 사들이려 하고 있다.

이미 충북 영동에는 미군 쓰레기 탄약 폐기시설이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지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위해가 가해지고, 우리 국민은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우리에게 부당하고 굴욕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WRS-K 협상을 중단하고, 미군 쓰레기 탄약을 미국으로 모두 되가져가야 할 것이다.

6.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발맞추어 주한미군 철수 하고 한미동맹 폐기해야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하여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명시된 대로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한다. 또 대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장기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부당한 지배와 착취를 영구화할 수 있다.

이에 한미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에 발맞추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가을 단풍 속에서 만난 무채색 회원

- 홍천 조규웅 회원을 만나고 -

송지영 | 양심수후원회 사무국

멀리 홍천까지
조규웅 회원
님을 찾아갔다. 서
화전 준비가 한창
일 무렵 서화전 초
청장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전화를
두 번이나 받았다.
멀리서 서화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준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
조차 사무국에 남



층계를 올라 창
문틀을 바라보니
붓걸이에 붓이 잔
뜩 매달려 있는 것
이 먼저 눈에 들어
온다. 현관문을 열
자 회원님과과는 사
뭇 다르게 활짝 웃
음 지으시는 사모
님이 반갑게 맞아
주신다. 신발을 벗
고 마루에 올라서
니 손때 묻은 LP판

아 있지 않았다. 마지막 날 휴게실에 오랫동안 앉아 계
시다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신영복선생님의 글
과 류낙진, 오병철 선생님의 글을 들여다보시더니 신영
복 선생님의 작품 “길벗 삼천리”로 낙점하셨다. 낙점하
시고 나서야 그 분이 멀리 홍천에서부터 오신 그 분이
란 것을 알았다.

그 짧은 만남 외에 회원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
이런 회원>이 서울과 인근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을 평
계 삼아 가을 나들이를 나셨다. 홍천에서 서울까지 와
주신 것에 대한 인사겸 낙성대를 벗어나 잘 익어 가는
단풍구경을 하기로 했다.

버스가 시외로 벗어나기가 무섭게 산들은 온통 별절
고 노란 물이 들어 고개를 쳐들고 달려든다. 홍천 시외
버스 터미널에 내려 전화를 드리니 그냥 집으로 들어
오라 하신다. 물이 맑다 못해 투명하기까지 한 홍천강
지류를 건너 서화전에서 잠시 보였던 멧쩍은 미소를
지으시는 회원님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섰다.

들이 그득 눈에 들어온다.

성격 급한 나는 대뜸 “LP로 음악을 들으세요? 몇 장
이나 모으셨어요?” 질문부터 쏟아 놓는다. 천이백장 정
도의 장르를 불문한 음악을 LP로 감상한다 하신다. 요
즘 나오는 음악들 말고 칠팔십년 대 음악들은 혼자서
음악을 들으며 당시를 회상하거나 상상하며 들으면 그
때 그 때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지금 들어도 좋다 하신
다. 아니나 다를까 붓도 장식품이 아니었다. 서에도 3
년 정도 배우고 집에서 꾸준히 쓰고 계셨다. 그래서 서
화전 때 작품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셨던 게다.

홍천 토박이로 태어나서 젊었을 때 아버님이 지으시
는 농사 일 돕는 ‘진달농사’를 지으며 일곱 남매의 둘
째로 자랐다. 전두환 정권 때 홍천이 재개발되며 농사
짓던 땅을 잃고, 공장 다니다가 운수업체 관리직으로
영업소 일을 하다가 말하자면 정리해고를 당했다. 지
금은 주유소에서 오후 일곱 시부터 11시까지 여섯 시
간 반 근무를 하고 새벽에 다시 나가 문을 여는 것이 일

과다.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못하는데다가 홍천이라는 지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이쯤에서 내려가기 전부터 품고 있던 의문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어떻게 양심수후원회 활동을 할 생각을 하시고, 언제부터 하셨는지 다른 가족들이 이런 활동에 대해서 협조적이신지…… 지금까지 만난 후원회원들과는 사뭇 다르게 사전 정보도 없고, 활동에 대해 들은 바도 없이 그저 서화전 전에 받았던 전화 한 통과 서화전 마지막 날 뵈 잠깐의 모습이 다였으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질문들이었다.

담겨있던 말들을 풀어내느라 숨이 가쁜 나와는 달리 어색하게 웃으시며 ‘뭐, 특별한 계기 같은 것은 없었는데……’ 하시면서 풀어놓는 이야기가 그분의 웃음과 맑은 눈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려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많지 않지만 회비를 내는 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경실련은 창립 초기부터 활동하다가 사무총장 파문 이후 말 끊었다. 그렇게 여기저기 후원하며 적극적이진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천 노동인권회관에서 김문수가 했던 노동자를 위한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 한 나라당에 가 있는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뭐 유독 김문수 뿐 아니라 요새 신진정치 세력들이 심지가 없고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지향점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꼴통보수라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는 것은 신진정치세력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아닌가 한다.

양심수후원회는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여서 죽 구독하고 있던 신문에 실린 윤정모 선생님의 글(윤정모 선생님의 소설을 좋아하고 많이 읽은 후여서 기사의 내용에 눈길이 가고, 그 단체에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았다)을 보고 가입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회비를 내고 있다. 사모님이 은행에서 지로로 납부를 하면 은행 여직원들이 되묻는다고 한

다. “홍천에도 이런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내게 물으신다. 조규웅회원님말고 홍천에서 회비 내는 회원이 또 있느냐고……

잠만 자는 것은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부지런한 성격이라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시간 날 때마다 책 읽는 게 밥이지요, 밥.”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 요즘 (만들어진 신) 을 읽고 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은 무신론자들이 읽으면 개탄할 내용이라한다.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 전 이태준의 소설집을 읽었다며 월북 이전의 작품들을 추천한다. 월북 후의 작품들에서는 정제된 느낌이 있어서 월북 이전의 작품들을 더 좋아한다.

가정생활에 관해 궁금해졌다.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서화전에서 150만원의 고가의 그림을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가시고, 매달 회비를 내시는 가정에 대한 사모님의 생각이 궁금해질 시점이었다.

두 분은 공장에서 일하다 만났다. 십구 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지만 결혼기념일 챙기고 그런 것은 못하고 산다. 서로 참으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좋은 것이고, 무채색으로 무탈하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한다. 요란한 이벤트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 양심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사모님은 별 재미가 없으시겠다 했더니 그래도 잔정이 많은 사람이라며 예의 그 함박웃음을 지으신다. 아들이 애교가 많고 살가운 것이 아버지 꼭 빼 닮았다고 자랑도 은근히 하신다.

아이들의 사진이 있어 몇 살이나 물으니 큰 딸이 고3, 작은 아들이 중1이라한다. 비평준화 지역이라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보습학원을 다니게 된 것이 얼마 안 되었다. “다 공부 잘하면 수도 망가지면 수도 누가 고쳐!”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쁜 것이 문제다. 사교육이나 교육열의 문제는 사회풍조가 문제란다. 직업의 귀천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여자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 양심수후원회에는 그런 멋진 생각

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교육은 정체성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대중적인 드라마로 윤색된 광개토대왕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광개토대왕비를 옛날 국민교육현장 외우듯이 외우고 땅이 망소의 난에 관해 가르치고 민족주의적이지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민족적 정체성’을 심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신다.

사실은 사모님은 계속 다니던 공장을 올 5월 유방암이 발발해서 그만두고 항암치료를 받아왔고 9월에 치료가 끝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그런 사모님을 두고 서화전에서 신영복선생님의 글씨를 사가지고 내려와서는 며칠 숨겨 두었다가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갔다. 가격도 눈치 없는 내 덕에 그 날 탄로가 났다.

신영복선생님의 글씨가 나온다는 기사를 보고 처음부터 한 작품 사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 신선생님이 육군사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간첩이란 보도를 처음 접했고, 그 때는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 큰일 났다. 군 장교들을 길러내는 곳에 간첩이라니……’하는 생각을 했었다. 시간이 흘러 신선생님의 책을 접하고 공교육에서 받은 반공교육의 틀을 깨고 나온 지금, ‘간첩’인 줄 알았던 분의 작품을 사러 한 달에 두 번 있는 귀중한 휴일을 썼다.

시간이 좀 흘러 두 분이 모두 편안하게 대해주시자 야기자기하고 단정한 오래된 집안의 풍경이 들어온다. 사치스럽지 않고 단정하게 LP판들과 어우러져 몇 그루의 난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사모님께서 기르시는 것이냐고 묻자 회원님이 직접 기르시고 좋아하신단다. 정말 부지런하시다 생각하며 기르시기 번거로우시지 않느냐 물으니 우문현답이 돌아온다. “무슨 사물이든 너무 애정을 쏟으면 서로 불편하다”고.

그런 생각으로 지나치게 깊이 애정을 쏟지 않고 사회활동도 한다. 지금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 사회활동을 가정을 비우지 않고 생계를 책임지는 선에서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생각한다. 이십 대 때 사회주의 안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유행시킨 지식인

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말을 싫어한다. 젊었을 때 진보주의자인 양 행동하다 현실에 적응하며 보수주의자로 변하는 것이 제일 싫다. 나이 들어가며 진보적인 마인드를 꾸준히 유지하고 활동해야 젊은 사람들이 본받을 것 아니냐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문익환선생님이 그런 점에서 훌륭한 분이라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야 한다.

“술을 마셔야 말이 잘 나오는데……”하시길래 귀가 번쩍해서 술을 좋아하시냐고 물었다.

술보다 사람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11시에 끝나고 친구들 만나 술을 자주 마신다. 그렇지만 생각이 틀린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은 늘 언쟁이고 타인의 시각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힘들다. 후원회 식구들이 사람 좋고 술 좋아하니 언제 한 번 같이 마셔야겠다 하니 집 앞 개울바닥에 여름에 발 담그고 술 마시면 좋다고 언제 한 번 내려오라 하신다. 게다가 술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직접 담가 선물한 막걸리 한 통을 대뜸 싸주라 하신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어나신 사모님 주섬주섬 부엌에서 회원님 아버님택 나무에서 탄밤도 한 봉지 싸서 주신다. 빈손으로 갔다가 양손 무겁게 나왔다. 하지만 결단코 술 안 드시고도 말씀 잘하셨다. “옛날에 율곡사업 했던 놈들 다 국보법 위반으로 잡아넣어야 되는 거 아냐? 나쁜 무기 들여와서 적을 이롭게 했으니까!” (낮술 안마시고 인터뷰 했음^^)

짧은 시간 백지 위에 선 몇 개 그어가지고 내려갔다가 이 나무, 저 나무 그리고 색까지 입히느라 마음은 분주했지만, 그 어떤 색이 번져도 무채색 자신을 지키며 이십 년 가까이 양심수후원회에 보이지 않게 힘이 되어주신 회원님을 만난 돌아오는 길은 따뜻했다. 색색의 단풍을 보러 갔다가 무채색 한 그루 잘 생긴 나무를 보듬고 돌아왔다.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3차산행 도봉산을 다녀와서

오용진 | 범민련 후원회원, 한마음통



약간의 추위를 예상하고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만남의 장소까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산행을 도와주려는지 날씨는 예상보다 푸근했습니다.

도봉산 입구를 가기도 전부터 많은 등산객들로 올라가는 길목은 북적거렸습니다. 10시가 가까워 오면서 한 분, 두 분 씩 회원 분들의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창립산행을 맞이했을 때는 거의 처음 뵈는 선생님들과 회원들이 많아 참으로 어색하기도 했으나 한번, 두 번 산행을 가다보니 모두 가족 같아 맘이 편안해졌습니다.

10시 30분정도 인원정리하고 양심수후원 회원이시면서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공동 산행대장이신 김재선대장께서 만들어 오신 “6.15한마음 통일산악회”라고 쓰인 명찰을 참가회원 모두 배낭 뒤에 달았습니다. 많은 등산객들로부터 안전하고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신 배려였습니다.

이번 3차 산행에도 양심수후원회, 범민련남측본부와 후원회, 사월혁명회, 통일광장, 민가협, 전민특위, 평통사, 통일뉴스 등 48명의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즐겁게 올라갔습니다.

매번 산행 선두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끌어주시면서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산행을 1시간 30분 정도 오른 뒤 옛 절터였던 장소에서 회원들이 손수 집에서 싸오신 식사를 서로서로 맛있게 드시기 시작했고 모자란 부분은 선생님들이 싸오신 푸짐한 음식을 나눠먹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언제나 나도 맛있는 음식을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아쉬움을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산상강연에 들어가기 전 이정태 산행대장의 주도로 몸풀기 운동을 하고 이 날 산상강연에는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님의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주제로 1시간 여의 강연을 시작했다. 강연의 내용으로 한미관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평택주한미군 문제, 군축문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나가면서 한미관계의 본질을 침략적 동맹으로 규정했다. 또 한미관계도 화해와 통일 분위기로 바뀌야 한다면서 한미관계의 본질은 침략적이다.

침략적 한미관계가 군비축소 등을 통해 한미동맹이 아니라 민족공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시간의 강연을 마치셨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하산을 하는 회원들과 조금이라도 도봉산의 경치를 더 보고자 하는 회원들로 나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양심수후원회에서 만경대라고 이름을 붙여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은 올라올 때마다 그때그때 느껴지는 맛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단풍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치는 최고였습니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다시 하산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먼저 내려와 계신 선생님들과 회원들과 함께 기념의

사진을 찍고 서울범민련 부의장 소기수선생님과 사모님이 손수 준비해주신 호박수제비와 술 그리고 맛있는 고기안주 등을 산행을 함께 한 회원들과 나누었습니다. 다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뒷풀이를 해서 산행을 다녀왔던 피로함을 잊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다시 한 번 뒷풀이를 준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날 산행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두들 수고하셨다는 말과 앞으로도 좋은 산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양심수후원회

북녘어린이 콩우유 보내기운동에 양심수후원회가 함께 합니다.

양심수후원회의 특별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개 중인 ‘북녘어린이 콩우유 보내기운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핏줄 한민족인 남과 북은 서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 후원계좌 : 제일은행 159-10-00141

■ 예금주 :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북녘 큰물피해성금 1,000만원 기탁

19차년도 6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북녘 큰물피해 돕기를 위한 성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양심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에서의 수익금 일부와 서화전 기간 동안 오신 분들이 내주신 성금, 그동안 양심수후원회에서 모금한 금액에 권오현 회장님이 흔쾌히 내주신 300만 원을 보태 1,000만 원을 우리 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최병모 이사장과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에게 권오현 회장님과 김호현 부회장님께서 청진동 소재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전달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북의 두 정상이 마주하고 공동번영과 통일을 다짐하고 선언문을 발표한 이 순간에도 보안법상의 적지에 가서 그 무슨 지령인가를 수수했다는 이유로 일 년 쯤 갇혀 살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천지 개명한 세상에 아직도 보안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대통령과 수많은 수행원들이 북녘 땅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회합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고 평범한 양민이 헌법에도 명시된 내나라 내 땅이라고 도저히 가보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한번 갔다 왔을 뿐인데 이렇게 꾀박을 받고 온 민족의 한맺힌 염원인 통일의 열망을 단절시키려 하다니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도한 역사의 진보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녕 통일이 멀고도 먼 길이어야 한답니까! 반드시 50년은 넘기지 말자고 했는데 분단 60년이 넘었고 또 7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지독한 일제의 탄압과 강점에도 우리의 훌륭한 조상들은 36년 만에 끝장을 내고 훌륭한 민족해방의 전통을 남겼는데 아무리 운이 없다고 해도 70년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마침 북경을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한다고 하니 한반도 단일통일국기와 함께 이참에 국호통일이라도 해서 해외동포는 물론이고 아시아 나아가 세계 만방에 우리는 하나의 나라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통일국호를 코레아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통일국호는 高麗(國)라고 밝힐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중국이 강탈해가는 고구려를 되찾는 길일뿐 아니라 고려는 어감과 의미도 좋습니다. 김구선생은 일찍이 우리나라는 강국도 대국도 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인문문화의 수준이 높고(高)아름다운(麗)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얼마나 진보적인 선견지명입니까

김구선생의 시대를 앞선 통찰과 혜안에 경탄과 존중을 표하며 이제 국호통일이라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고려공화국만세!!

추신: 그동안 잊지 않으시고 계속 후원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아름다운 후원회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꼭 호의에 보답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가내 평안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

- 2007. 10 6 전주교도소에서 박종기 삼가올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호중입니다.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는 죄로 수감되어 있는 중이지요,

보내주신 영치금 서신 책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책과 영치금을 받았음에도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후원하여 주

신분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투쟁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계획하는 전사들의 쉼터, 감옥이라고 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래서 얼마나 설지 모르는 그리고 밖에서의 치열한 투쟁을 사법제도가 어떻게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충실하게 복무하는 것을 알려내는 또 다른 투쟁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올여름은 유달리 비가 많이 와 가뜩이나 햇볕을 볼 수 없는 감옥에서 그나마 창살로 가을이 되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땅 민중의 마음을 하늘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심수후원회동지들의 정성을 생각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 2007년 10월 3일 경기서부건설지부장 김호중 올림 -

권오현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대구교도소의 건설노동자 박해옥입니다. 건강하신지요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람을 몹시도 지치게 하던 더위는 자연의 순리대로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밤바람이 차저서 긴소매를 입어야 할 정도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많은 야외집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13개 단체가 함께하는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의 활동은 구속노동자들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당당하게 활동하시는 공동행동의 요구에 함께 하여 저도 9일간 단식투쟁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단식투쟁의 기회를 주신 공동행동의 여러 성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업을 하면서 가두행진도 하였고 점거농성도 하였습니다. 회사 담벼락 밑에 무작정 천막을 치고 노숙투쟁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단식투쟁을 통하여나 자신을 다스리는 투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단체와 동지들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동지들의 활동에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철창 속에서 양심수후원회의 관심과 후원을 받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29개월이라는 형기가 참으로 지겹게 느껴졌는데 어느덧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매월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늦지않게 소식지를 보내주어 동지들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회장님을 끊임없는 활동과 따뜻한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11월 7일 건설노동자 동지들이 있는 곳 울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단체와 동지들의 관심과 애정을 가슴 속에 기억하고 또 다시 건설노동자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양심수후원회의 여러 선생님들과 회원들의 건강하심을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2007년 10월 14일 대구교도소에서 건설노동자 박해옥드림 -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님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징역살이가 삼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육개월이 남았는데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받으면 조금 더 일찍 나가지 싶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후원의 격려와 감사함은 꼭 잊지않겠습니다. 일일이 다 감사인사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마침 저와 같은 사동(5사하층)에 김정태(5052수번)라는 공안수가 들어와서 이웃으로 멀리 떨어져서 있는데 '국가보안법위반' 이랍니다.

얘기를 나누어보지 못해 무슨 일인지 언제 들어왔는지 만기가 언제고 형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가 중한지 운동도 늘 혼자하고 독방에서 타 죄수들과의 소통도 엄격히 금하고 하여서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동 이웃 독방 멀리 한 공안수(국가위반)가 있고 제가 사동 봉사원(소제)을 통해 민가협에 직접 편지를 써서 알리라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다' 길래 제가 대신 이렇게 이웃된도의료서 편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구속된 후 일년이 넘어서야 겨우 같은 양심수동료에 의해 민가협에 알려졌었는데 제가 이제는 마찬가지로 모르는 일을 알려드립니다.

권오현 선생님께서 잘 알아서 무슨 죄목인지 형량은 얼마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양심수명단에 올려주시고 후원회 소식지 민주가족지 민족21등 등의 책과 양심수후원금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곧 나가오니 더 보내시지 않으셔도 가하겠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동지에게 그 힘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이만 부족한 글 줄이겠습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재야인권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빌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금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 2007년 10월 20일 광주교도소에서 전옥용 삼가 씁니다 -

2007 역사기행을 다녀와서

심주이 | 회원



권 오현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다. 1박으로 어디를 가자고 하셨는데, 수업 중에 전화를 받아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고, 그저 직접 전화까지 주셨는데 꼭 시간을 내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석을 했다. 이 여행이 일년에 한 번 있는 역사기행이라는 것은 차에 타 자료를 받고서야 알았다.

양재역의 모이는 장소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다. 아는 선생님도 몇 분 계셨지만,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나를 모르실테고, 너무 오랜만이어서 낯설고 몸둘 바를 몰랐다.

그 때 모지희 선배가 왔다. “오랫만이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며 알아봐주시니 어찌나 고맙던지.. 그 때서야 맞게 찾아왔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관광버스에 어르신들께서 먼저 자리를 잡고 계시니 느즈막히 낮익은 후원회원들이 차에 올랐다. 반갑게 손 맞잡고 인사를 하고 나니 삼년이란 시간을 뚝 잘라먹은 듯 그저 반갑고 편안했다. 아마도 꼬마아이부터 모든 연령대가 두루 있는 모임이 많지도 않지만, 모두 한 마음 한 식구처럼 좋기도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가톨릭회관에서 후원회에 처음 가입하던 날의 모습 그대로인 용준선배가 간신히 버스에 오르면서 서울을 출발했다. 차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막힘없이 달렸고, 그

안에서는 기행의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잘 편집된 자료와 정확한 진행, 무척 오랜만에 경험해보는 여행이었다. 마치 수학여행을 가는 것 같기도 했다. 버스의 뒤 쪽에는 후원회원들이 많이 앉아 계셨는데, 맛있는 술과 안주로 반가움을 나누고 계셨다. 나도 빼놓지 않고 불러주시니 처음 만나 뵙는 분들까지도 인사를 나누며 짧지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쪽에서는 양재혁 교수님께서 인사로 시작하신 강의가 계속되었다. 사실 들을 때는 아~ 새롭다. 좋은 내용이다 생각하며 들은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질 않는다. 고향이 예산이라고 하셨던 것 밖에.. “그리고 목적지에 거의 도착하여 강의를 마무리해야 했을 때 “아직 기운이 펄펄 나는데 아쉽다.”고 하신 말씀 속의 열정적 모습이 멋있게 기억난다.

어둠이 살짝 내릴 때 째름 추사고택을 둘러보고, 충의사에 들렀을 때는 날이 많이 어둡고 관람시간이 끝나 바깥을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그리고 바로 숙소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하고, 조금 후에 양재혁 교수님의 강의 시간이었는데.. 사실 나는 강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차 안에서 술 세잔정도를 마신 것 같은데, 어찌나 곤하던지 잠시 잠을 청한다는 것이 눈을 떴을 때, 강의가 끝나고 뒷풀이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9시 정도였을 것이다. 식당에서 뒷풀이가 있었는데, 세 모듬으로 나누어 노래대결이 있었다. 함께 기행을 온 사람들 간에 더 가깝게 대화도 나누며 어우러지는 시간이어 물론 좋았지만, 더더욱 잊혀 지지 않는 것은 어르신들의 노래이다. 내가 아는 노래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노래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을 자극하는 음율과 가사, 그리고 노래가 그인지 그가 노래인지 모르게 황홀했던 그 모습들. 어르신들의 한과 인생의 깊은 것이 묻어나는 그 느낌. 그것만이 또렷하게 마음을 울린다.

뒷풀이는 새벽2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다.

주변의 분주한 소리에 깨어 시간을 보니, 아침.아니 아침잠이 많은 내겐 새벽 6시였다. 수덕사에 간다고 한다. 이불 속에서 잠을 떨치지 못해 벌떡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무처장님께서 전날 밤부터 아프다고 하시더니 침을 맞으셨다. 그 바람에 출발은 조금 늦어졌고 그래서 부스스 일어나 카메라가방만 챙겨 들고 나섰다. 하얀 안개와 찬 기운이 내려앉은 아직은 어둑한 때에 수덕사 아래에 도착했다. 절을 향해 오르면서 밤을 지낸 숲의 냄새가 코를 지나 머릿속을 상쾌하게 했다. 일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절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수덕사의 대웅전은 1308년 고려시대에 건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이라고 한다. 전쟁 때 전투를 피해가서 보존이 잘 될 수 있었다는 설 명도 들을 수 있었다.

절을 둘러보고 덕숭산에 올랐다. 사실 운동이 부족한 지라 한 10여분을 오를 때부터 돌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지만, 붉게 물든 단풍과 새벽부터 일어난 수고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입을 앙다물고 카메라에 풍경 담기에 열중했다. 산의 중턱쯤에 올랐을 때 붉은 해가 나무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고, 힘겹게 정상에 올랐을 땐 사방이 트이게 보이고 저 멀리 마을 곳곳에는 하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위로 해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듯이 일어났다. 옆으로 가야산이 보였는데, 그 곳에 얹힌 전쟁 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념사진을 찍고 내려오면서 산에 올라 이러한 숨은 우리의 역사를 듣는 경험이 참 값지다는 생각과 함께 후원회만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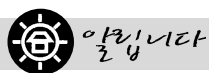
숙소에 도착해 식사를 하고 바로 다음 일정이 시작되었다.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를 관람하고 개심사에 올랐다. 개심사에서는 감을 따 서로 나누고, 청솔모의 감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침에 밀린 일정으로 해미읍성은 그 앞을 지나며 보는 것으로 했다. 권오현 선생님의 고향인 홍성에서 맛있는 충청의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했는데, 푸짐한 상에 젓갈과 야채 고기까지 무척 다양했다.

식사를 마치고 걸어서 홍주읍성을 돌았다. 낙엽이 내려앉은 분위기는 아늑해 보였다. 조금 더 걸어 여하정에 들렀는데, 옛 관아 옆으로 있는 연못위의 정자이다. 입구의 은행 고목과 여하정의 누워 자란 나무는 그 오랜 시간을 보여주는 듯 터득대감처럼 위풍당당해 보인다. 그곳에서 그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인간띠를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게 기억이 난다.

일본군과 싸우던 의병들을 모셨다는 홍주의사총과 만해 한용운 생가를 관람하고 예정지던 남당이 축제로 분주한 관계로 간월도를 마직막으로 들렀다. 고려 말 무학대사가 도를 깨쳤다는 간월암에서 수평선으로 내려앉은 해를 보았다. 마치 알찬 기행의 마무리를 빛내주는 듯 바다를 눈부시게 했다. 지역의 특산물인 대하구이를 먹고, 어리굴젓을 하나씩 사들고는 차에 올랐다. 서해에 으뜸인 황홀한 일몰과 떠를 이룬 철새 때가 우리의 돌아오는 길을 배웅해주었다.

우리의 땅을 돌아보며 그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 가끔 여행을 하며 둘러본 곳도 있었는데, 그때는 충실히 알거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하지만 후원회의 역사기행에서는 곳곳에서 진정 옛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려는 진지함이 묻어난다. 고택을 둘러보며 예전엔 정말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전쟁의 아픔과 진실을 보려는 마음이 그랬으며, 홍주의사총에서 모두 함께 묵념을 드릴 때도 그 진지함은 찡한 울림을 주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양심수후원회 2007년 회원 송년모임

2007년 도열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을 폐지하고 양심수 석방과 후원을 위한 한 해 사업을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주통일 과반전 평화 등 연대·연합 사업을 힘차게 추진해왔습니다. 이같은 지난 한 해 활동을 서로 격려하고 새해 사업도 다짐하며 회원들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한 송년 모임에 모두 함께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 시: 2007년 12월 16일 (일) 낮 12시

■장 소: 새서울주물럭 (5호선 광화문역 세종문화회관 뒤편), 02-736-5797

6·15 한마음 통일산악회 11월 산행

■일 시: 2007년 11월 18일 (일) 이른 10시

■장 소: 삼각산

■모이는 곳: 우이동 그린파크호텔 앞 (4호선 쌍문역 4번 출구, 130번 우이동 종점 하차)

■준비 물: 간단한 도시락, 회비 3,000원

12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영화 상영회

■일 시: 2007년 12월 11일 (화) 늦은 6시

■장 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광화문 우체국 6층)

■작 품 명: 나를 부르는 소리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2003년 제작, 79분 상영)

■줄 거 리: ●황해도 토지정리 건설장의 불도저 운전사 성식 아버지 대의일로 죄의식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아다량의 인정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문의: 한찬욱(016-235-5631)

*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흥노님 후원금

미국에서 150\$를 보내주셔서 (환전 금액 125,603원)

후원금으로 감사히 받았습니다.

멀리서도 이땅의 양심수들을 위한 마음 쓰심에 감사드립니다.

192호 정정

이기욱 변호사님의 회비 10,000원을 100,000원으로 정정합니다.

김경중 회원님을 김경중 회원님으로 정정합니다.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FAX : 02-888-4470 ■ E-mail : yangsimsu@hanmail.net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기타()		

2007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7년 10월 31일 총 67명 |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결
강성철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9.19	폭력	1년6월	2008/04	영등포구 3402	기결
강순정	재야	범민련	회합통신	2006.11.28	국보	1년6월	2007/11	서울구 197	기결
강윤복	노동자	타워크레인노조인천	파업	2007.7.23	업방집시			영등포구 3410	미결
구권서	노동자	공공서비스노조서울	경북철국 환경미화원 파업(05)	2007.7.13	업방집시	1년	항소중	대구구 69	미결
권영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1년6월	2008/01	포항교 3079	기결
김익	재야	개인	이적표현물	2007.7.9	국보			서울구 89	미결
김도형	재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6.1.26	병역법	1년6월	2008/08	영등포교 906	기결
김명선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2009/01	진주교 9	기결
김영욱	노동자	타워크레인노조서울경기	파업	2007.7.23	업방집시			영등포구 3407	미결
김병걸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2009/01	김천교 631	기결
김봉대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2009/01	마산교 2053	기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2005.2.22	명예훼손정통법	3년+2월+6월	2008/10	영등포교 13	기결
김양호	재야	민주노동당(대전)	한미FTA 반대 집회(11.22)	2007.1.3	집시폭력	1년6월	상고중	대전교 1911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폭력화염병	3년	2008/06	경주교 500	기결
김치수	재야	한국사회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7.9.13	병역법			서울구 3498	미결
김학근	노동자	이랜드일반노조울산	파업(비정규직 해고반대)	2007.9.21	업무반대			울산구 27	미결
김형영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폭력화염병	3년	2008/06	홍성교 200	기결
김호중	노동자	건설노조경기서부	파업(안산 목수)	2007.7.16	집시			수원구 338	미결
문상민	재야	전국장애인교육연대	강원도 교육청 항의방문	2007.9.13	특공치상			춘천교 2009	미결
박철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6.11.7	병역법	1년6월	2008/6	영등포구 2426	기결
박경수	학생	성공회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6.12.14	병역법	1년6월		성동구 1974	미결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2007.2.1	국보	3년6월	항소중	서울구 151	미결
박성길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9.19	폭력	1년+4월	2008/01	공주교 1302	기결
박성표	노동자	타워크레인노조경기남부	파업	2007.7.23	업방집시			영등포구 3408	미결
박석운	재야	한미FTA 반대범국본	한미FTA 반대 집회 등	2007.10.9	집시, 특공 등			서울구 47	미결
박은진	노동자	건설기계노조인천	노조활동 관련	2007.6.26	업무방해	10월	항소중	순천교 249	미결
박종갑	노동자	민주노동당(대전)	한미FTA 반대 집회(11.22)	2007.3.16	집시공방	1년6월	상고중	대전교 593	미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 방문	2006.10.23	국보	2년6월	2009/05	전주교 2500	기결
박준의	재야	민주노동당	이적표현물	2007.6.18	국보			서울구 105	미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7.5	업방폭력	1년6월+1년	2008/01	대구교 52	기결
변외성	노동자	전해투	노사정합의 규탄 한국노총항방	2006.9.19	폭력	1년	2007/09	원주교 222	기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6.8	폭력화염병 치사	2년6월	2007/12	목포교 22	기결
성낙영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5.3	화염병 치사	6년	2009/05	장흥교 11	기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4년	상고중	서울구 113	미결
송인욱	학생	서울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6.11.23	병역법	1년6월	2008/05	영등포교 907	기결
심진보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2009/01	안동교 1138	기결
안병문	노동자	부천일반노조	파업(비정규직 해고반대)	2007.7.29	업무방해			영등포구 3411	미결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위두환	농민	전농광주전남	한미FTA반대집회(1122)	2006.11.26	집시폭력	1년6월	2008/06	장흥교 50	기결
윤병일	노동자	민주노총(성남)	파주축협 관련	2007.8.8	업방집시			의정부교 1049	미결
이경옥	노동자	이랜드 일반노조	파업(비정규직 해고반대)	2007.7.26	업무방해			영등포구 4213	미결
이남신	노동자	이랜드 일반노조	파업(비정규직 해고반대)	2007.7.26	업무방해			영등포구 3432	미결
이상욱	노동자	현대차 노조	파업(한미FTA반대)	2007.10.11	업방특공			울산 동부서	미결
이오식	노동자	화물연대(대경)	파업(일자리테크)	2007.4.22	업방집시,폭력			대구교 53	미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4	국보	3년	상고중	서울교 109	미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3년6월	2010/01	김천교 709	기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	상고중	영등포구 3476	미결
이재위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비정규직해고반대(울산하이퍼)	2007.9.21	업무방해			울산교 11	미결
이현숙	노동자	전국학습지노조	해고자 복직(한솔교육)	2007.9.14	업방공방			영등포구 4015	미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7년	상고중	성동교 33	미결
장승호	노동자	타워크레인노조(대전충청)	파업	2007.7.23	업방집시			영등포구 3406	미
전남수	노동자	건설기계노조(순천)	노조활동 관련	2007.6.26	업무방해	8월	항소중	순천교 249	미결
전옥용	재야	개인	북한방문	2004.11.18	국보	3년6월	2008/05	광주교 5009	기결
정민호	노동자	타워크레인노조(광주전남)	파업	2007.7.23	업방집시			영등포구 3409	미결
정병원	노동자	뉴코아 노조	파업(경리해고 반대)	2007.10.7	업무방해			인양서	미결
정수용	노동자	건설기계노조(순천)	노조활동 관련	2007.6.26	업무방해	1년	항소중	순천교 213	미결
정승중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2009/01	마산교 1934	기결
정영기	노동자	뉴코아 노조	서울지방노동청 농성	2007.10.2	공방특공			서울교 27	미결
정은식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2년6월	2009/01	경주교 410	기결
정재훈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7.5.22	병역법	1년6월	2008/12	영등포구 2542	기결
정철윤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 반대	2005.6.8	폭력,화염병 치사	3년	2008/06	안동교 15	기결
정후택	노동자	금속노조(울산)	한미FTA반대 파업	2007.10.2	업방특공			울산교 10	미결
정희성	노동자	민주노총(광주전남)	한미FTA반대집회(1122)	2007.4.30	집시공방			광주교 3313	미결
주제준	재야	한미FTA반대법국본	한미FTA반대 집회 등	2007.10.9	집시,특공 등			서울교 61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6월	상고중	영등포구 3413	미결
허현우	노동자	민주노총	뉴코아(비정규직 해고반대)	2007.9.20	업무방해			서울교 115	미결
홍윤경	노동자	이랜드 일반노조	파업(비정규직 해고반대)	2007.9.18	업무방해			영등포구 4080	미결
황우찬	노동자	민주노총(포항)	하중근 사망 규탄집회	2006.8.17	집시	2년	상고중	대구교 22	미결

01 -----

☞ 영동포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2007 남북정상 회담에비라는 한국진보연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공동대표의 여는 말,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 문경식 전농의장,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대표,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 등의 결의발언과 한상렬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회견문에서는 평화체제 구축, 상호적대적 제도 청산, 경제적 공동 번영 통일방안 합의 등을 요구하다.

☞ 청와대앞 국가보안법 양심수 가족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마지막날. 1인 시위자로 강정구교수와 정설교농민시인이 참여하다. 시위를 마치고 권오환양심수후원회 회장, 강정구교수, 정설교 농민시인이 청와대에 국가보안법 폐지촉구서한을 전달하다.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대표 정일용)는 성명을 내고 이북관련 사이트 차단 해제와 친북게시물 삭제명령 철회를 요구하다. "국보법에 근거해 이뤄진 북한 관련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명령은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민족의 융비를 이루어야 할 시대적 소명에도 어긋나는 처사다"고 비판하다.

02 -----

☞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1996년 연대행행 당시 종합관에 있었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치사상과 한총련 배후조작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오던 이재춘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다. 검사는 7년 징역,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다. 이에 김승교 변호사는 이재춘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 등 증거부족과 최회정씨 증언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선고를 요청하다. 이재춘씨도 최후진술에서 '6.15 시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다면 김상경 유족에게 위로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다.

☞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항소삼에서 7년 징역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민호씨를 면회하다. 장민호씨는 건강해보였고 분단시대 통일운동의 당위성과 자신의 행동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뜻깊은 일이었다고 말한다. (권오환대표가 다녀왔음)

☞ 2007 남북정상회담차 노무현대통령과 부인 권양숙여사, 공식수행원 특별수행원, 기자단 등 300여 명이 서울을 떠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으로 가다. 노무현대통령 내외분과 공식수행원 13명은 군사분계선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걸어서 분계선을 넘어 북측 통일전선부 최승철부부장 등 영접을 받다. 분계선을 넘는 대통령은 ".....미침 내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이다. 장벽은 무너질 것이다"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다. 일행은 북측인사의 안내를 받아 개성 평양간 고속도로에 진입, 황해북도 서흥군 수곡 휴게소에 들렀다가 평양시 입구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을 지나 대동강충성의 다리를 건너 인민문화궁전 앞에서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다. 함께 무게차를 타고 수십 만 평양시민이 연도에서 환영하는 길을 따라 만수대 의사당, 개신교 등을 지나 모란봉 구역에 있는 4.25 문화회관 앞 광장에 도착, 미리와 기다리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중을 받다. 두 정상은 혁명음악대의 장엄한 연주 속에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명예위병대의 사열을 받다. 이어 북측 김영일 내각총리를 비롯한다. 정·군 고위인사 21명과 인사를 나누다. 이어 남북 두 정상은 광장 가운데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조선인민군위병대의 열병식을 지켜 본 다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 공식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다. 환영행사가 끝나고 노무현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은 백화원 초대소(영빈관)으로 떠나다. 노무현대통령 일행은 오찬을 마치고 만수대 의사당으로 가서 최승철통전부 부부장, 김용철 만수대 의사당 의례 책임자의 영접을 받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회담에 들어가다. 남측에서는 공식수행원이 북측에서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의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김용삼 철도상, 리동휘 육해군상, 최장식 보건상, 권호웅 내각참사, 최승철 부부장, 이정석 농업상 등이 함께하다.

☞ 한편 권양숙 여사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측여성 지도자들을 만나다. 박순희 조선여성동맹위원장, 류미영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여성협회 회장이며,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최금춘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수, 장금숙 모란피복공장 지배인, 허덕복 평양시 농업근로자 동맹위원장, 김혜련 고려의학 과학원 소장, 리명순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과장, 김영희 조선여성협회 위원, 오정화 인민대학습당 처장, 강선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등이 남측에서는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여성수행원들이 함께하다. 이어 홍선옥 회장안대로 인민대학습을 참관하다. 또한 정계 재계 문화계 등 특별수행원 등은 이날 오후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을 참관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날 마지막 행사로 저녁 7시 평양모란관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함께 하다. 환영만찬에는 공식 특별수행원과 기자단이 함께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환영사화 노무현대통령의 답사가 있었음.

☞ 북핵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일 "조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에 일본과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히다. 김 부상은 또 6자회담 합의문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시한이 명기됐었다고 말하다. 이에 앞서 김 부장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6자회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일관계정상화 문제를 협의하다.

☞ 일산비전향장기수 신현철선생님의 일산 백병원등 병원진료와 건강검진에 한찬욱운영위원이 동행수고하다.

03 -----

☞ 평양 백화원 초대소(영빈관)에서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 남북(북남) 정상회담(수뇌회담)에 들어가다. 회담은 오전 9시 34분부터 11시 45분까지 오후 2시 45분부터 4시 25분까지

이여지다. 남측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부장이 배석하다.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4일 낮, 환송 오찬전 선언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하다.

한편 노무현대통령은 공식특별 수행원, 기자단 등 전원과 함께 8시부터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다. 관람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북측 지도부도 함께 하다. 이어 저녁 10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당·정·군 고위 인사 등을 초청하는 담테민찬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음. 한편 이날 낮 남측 사회, 문화, 제계 인사 등 특별수행원들은 김원균 평양을 약대학과 만수대 창작사, 3대 혁명관을 참관하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경제분야 업종별 대표, 대기업 대표, 국회 정당 관계자, 사회단체 언론분야 문화 예술, 학계 분야, 종교분야, 여성 분야 등 7개 분야별 간담회가 만수대 의사당과 인민문화궁전 등에서 남북대표가 함께 하여 진행된다.

북핵문제 제6차 회담2단계 회의(9.27~9.30)의 성과를 담은 합의문이 3일 공식 채택되어 의장국인 중국 외교부 우디웨이 부부장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행동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다.(간추린 내용) 1. 조선반도 비핵화 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조선)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영변의5mw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 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 불능화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함 ② 조선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12.31까지 하기로 함 ③ 조선은 핵물질 기술 또는 노후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 2. 관련국 간 관계 정상화 ① 조선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로 나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조선은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에 대한 대적성구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조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스에 기초해 조선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② 조선과 일본은 불행했던 과거 및 미결관심사항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전에 따른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할 것. 조선과 일본은 양국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다. 3. 조선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 조선에 제공될 것임. 구체적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및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4. 6자외무장관 회담 참가 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다. 참가국들은 외무장관회담 이전에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다.

이북은 3일 개천절을 맞아 남북이 단일민족임을 내세워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다. 평양방송은 "우리 민족은 단군의 핏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땅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풍습도 하나인단

일민족"이라며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공고화되고 체질화된 민족의 공통점을 기초로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오랜 세월 한 핏줄을 이으며 한 강토에서 함께 살아온 단군의 후손들이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고통을 겪는 것은 민족사적 전지에서나 민족적 독립과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의 요구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더는 참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런 조건에서 온 겨레는 단군민족인 우리 민족이 하나의 단일민족임을 철저히 명심하고 대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04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백화관 초대소에서 '남북(북남) 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합의 서명하다. 선언의 합의내용 8개항의 구성을 보면 1,2항은 남북관계의 바탕이 되는 기본 정신과 원칙을 명시했으며, 3,4항은 군사적 적대관계와 정전체제 종식문제를, 5항은 경제협력, 6항은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력을, 7항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8항은 국제관계를 다뤘으며, 맨 마지막으로 남북총리회담 개최와 정상회담의 수시 개최를 명기하다. 사실상 남북관계의 거의 모든 현안을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6.15공동선언 정신을 재확인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본원칙으로 담은 1,2항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6.15기념일 제정 추진과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의회 등 각 분야 대화와 접촉'이다. (후원회 소식 192호 보심)

서명식이 끝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 환송 오찬에 함께하다. 노무현대통령은 이후 오후 4시 평양중앙식물원에서 남측에서 가져온 소나무를 기념식수하다. 백두한라에서 가져온 흙을 함토하고 천치, 백록담의 물을 흡수하여 나무를 심다. 이어 인민문화궁전 앞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주관하는 공식환송식에 참석하다. 이 자리에는 최태복 최고위민회의 의장, 김영일 내각 총리, 박순희 여성동맹위원장 등 당·정·군 고위 인사들이 함께 했고 남측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등 10여 명이 함께하다. 마치고 일행은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평양-개성고속도로를 거쳐 개성공단으로 향하다.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 북측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 최용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이상관 황해북도 인민위원장, 김일근 개성시 인민위원장 등의 환송을 받고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으로 부터 김정일위원장이 보내는 칠보산송이버섯 4,000kg을 선물로 받다. 이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공단에 들러 남북노동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은 뒤 (주)신원공장을 돌아보다. 이어 도라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 어린이 합창단의 환영공연을 보고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고 서울로 돌아오다.

이보다 앞서 노무현대통령 내외와 공식특별수행원은 오전 남포시에 위치한 평화자동차 조립공장과 다목적방조제인 남포 서해갑문을 방문 참관하다. (서해갑문은 1981년에서 86년 6월에 걸쳐 건설 준공했으며 길이 8Km의 둑과 갑문 3개가 설치되어 있음. 40억 달러 상당

건설비와 연인원 2,300명이 동원되고 저수용량 29억㎥, 통수능력 초당 4만 2,000㎥, 갑문 1시간, 수위조절능력 1억 5,000만㎥이라고 함) 노무현 대통령은 참관 후 '인민은 위대하다'고 방명록에 쓰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80회 목요집회를 열다.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여는 말, 미안마 민주화운동 관련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운동사무국장의 결의발언, 권오현 공동의장의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 내용발언, 이시우 평화사진작가의 출소 인사말 등이 있었음.

05 -----

☞ 낙성대 '만남의 집'에 여러 회원들과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10.4 선언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만 '만남의 집'에 게시 문상봉선생님을 비롯한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희망자들은 송환과 관련된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망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모성용, 김래곤, 민바, 리정에 강담선생님, 조순덕 민가협 전 상임의장 등 오셔서 문상봉선생님을 위로하였습니다.

07 -----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7일 인터넷 판에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축하하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지지 환영하는 재일본 조선인중앙대회가 6일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하다.

☞ 경기도광주 공원묘역과 신항식선생 묘소에서 남민전 관련 동지들과 과음시통감시통 회원들이 유족들과 함께 '고 만성 신항식선생 25주기 추모식'을 가졌음. 유족들이 준비해 온 재물을 차려놓고 권오현 사회로추모의례에 이어 최광은 동지의 약력 소개, 김경중동지의 추모시낭송, 김영옥선생님의추모말씀이 있었음. 고 만성 신항식 선생님은 서울대철학과를 졸업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3년 옥고를 치루시고 비전향으로 출소, 사회안전법 제정으로 수배생활을 하시다가 1976년 이재문, 김병권 동지들과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를 결성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1979년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1982년 10월 8일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사법 살인 당했음.

08 -----

☞ 한국진보연대와 추모연대, 계승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8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행사위원회' (이하 행사위)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추모제를 민주생존권과 조국통일의 현재적과제를 제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위원장의 여는 말, 권오현 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인대회의 의장의 결의발언이 있었고, 김지희 여성연대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에서는 △한미FTA 국회비준 기도와 한EUFTA 협상 즉각 중단 △비정규직법 철폐와 고용안전 보장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 △식량주권 사수와

농민생존권 보장 △신자유주의 세계화 거부 △민주열사 민주공원 즉각 건설 △올바른 과거청산등을 촉구하다.

☞ 프레스센터에서 18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 2차 상임대표자 회의를 열다. 권오현 상임공동대표 사회로 1차 상임대표회의 회의록 점검, 행사진행세부사항 보고와 재정보고 등이 있었고 논의 안건으로 행사진행 발언자 선정, 추가 안장열사 희생자 등 논의가 있었음.

☞ 민주평통이 지난 5일 여론 조사 전문기관 (주)MICK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동어로 국민 의지정도와 평화수역 방안합의에 대해 78%가 긍정적평가를 했고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한 대답이 84.3%로 나타났다고 밝히다. 가장 큰 성과로는 통일지향적 남북관계 22.5%, 남북경제협력사업 구체화 21.1%, 종전선언 추진 16.1%, 이산가족 상봉확대 11.9% 순으로 나타나다. 통일비용 부담 의향 있다는 긍정이 68.8%, 차기 정부도 대북정책 계승해야 한다는 78.2%, 북핵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82.4% 등이다.

09 -----

☞ 광화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장기수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북영화보기가 있었음. 김선분, 김수룡, 김순자, 김영식, 박정숙, 변숙현, 송세영, 신동철, 안인룡 선생님, 김래곤, 소수영, 이윤, 임미영, 한찬욱 등과 안산통일학교 박기래선생님 함께 하셨음.

☞ 서울 고법 형사 4부(재판장 김한용부장판사) 심리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필화사건 결심공판이 강행되다. 변호인과 강정구교수는 개인감정 등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속결주의 재판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항의했으나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고 결심공판을 강행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반복적 법위반으로 헌법적 가치를 손상시켰다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논고를 하고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하다. 이에 심재환 변호인은 검사의 논거 시각은 파쇼전체주의 국가관이라면서 역사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다. 피고인과 소속단체까지 불순단체라며 실천활동을 범죄사한데 대해 실형 없는 학문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다. 이어 국가보안법의 반인권 반통일성과 양심적 지식인을 법정에 세우고 있다고 강변하다. 또한 10.4 선언이 국회동의를 받으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며 무죄선고를 요구하다. 강정구교수 또한 냉전성역 허물 가는 정당하고 학문 연구에 대한 법적 제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최후진술을 하다.

☞ 일본정부는 지난 해 이북의 핵실험 뒤 취한 대북제재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이 밝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이북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자 특정 선박입항 금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화물여객선 만경봉호 일본 입항을 금지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핵실험이 있는 뒤에는 선박입항과 대북수입 전면금지 사치품수출금지 등 제재 조치를 자행했음.

한미FTA 반대투쟁에 앞장서온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주재준 상황실장이 9일 오후 6시40분경 서울 용산역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9일 저녁 보도 자료를 통해 “두 분은 그간 한미FTA저지 운동의 중심에서 투쟁하였고, 수배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저지와 11월 범국민행동의 날 참여 호소를 위해 각 지역을 순회하고 있던 중이었다”며 “경찰당국의 이번 연행은 한미FTA저지 운동을 약화시키고 기어이 졸속·밀실·퍼주기 협정인 한미FTA 타결을 강행하려 하는 폭거이다”고 밝힌다.

10 -----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사법살인 당했던 ‘민족일보사건(조용수 사장)’ 재심공판이 열린다. ‘민족일보조용수사건’은 조용수사장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1961년 박정희군사정권에 의해 구금 66일만에 사법살인을 당한 사건으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해 이 사건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한 위법’을 인정 ‘제3’ 등 상응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 이 날 피고인석에 선 조용수사장의 동생 조용준씨는 이 날을 위해 46년을 기다려왔다”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형님의 사법살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진술하다. 변호인은 ‘민족일보’가 이른바 특수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정당인지 사회단체인지, 그래서 조용수 사장이 간부인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주된 일이라고 하다.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석방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민가협 장터가 서울대 대동계 기간인 9~10일까지 열렸습니다. 장터가 열리는 기간 김호현 모성용, 소수영 임미영, 권오현 등이 다녀왔고 일손을 돕기도 했습니다. 어머님들 힘내십시오!

서울역 맞은 편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한미FTA-범국민’ 주최로 ‘범국민탄압 규탄, 박석운 주재준 등지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 공동대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재관 전농정책위원장 등 석방촉구 발언이 있었음. 마치고 두동지를 면회하다.

서울대 통일연구소가 ‘2007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북을 협력대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6.6%이고, 지원대상이 21.8%로 조사 대상의 78.4%가 이북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대상이란 응답은 11.8% 적대 대상은 6.6%이었음.

11 -----

중국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10일자 기사에서 6일 이북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 CBS 스튜디오센터에서 다양한 품새와 격파, 호신술 등을 선보인 시범 공연을 CBS가 미전역에 생중계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하다. 미국의 태권도 전문잡지 태권도 타임스 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공연은 각종 매체의 주목을 받았고 미국 언론도 이 공연이 70년대의 중국과 미국의 평평 외교에 비견된다고 평가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김동오부장판사)는 학생운동 배후혐의와 96년 연세대 통일축전 당시 전경사망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결심공판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받았던 이재춘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이날 석방되다. 재판부는 연세대 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학생운동배후 혐의도 무죄를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오랜 수배생활을 들어 집행 유예한다고 하다.

노무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있는 각 정당 대표 및 원내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경계선인데 북방한계선은 쌍방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그른 ‘선’이며,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걸 오늘에와서 ‘영토선’이라고 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 이라고 NLL 협의 불가론자들을 논박했다고 청와대가 밝힌다.

12 -----

전국 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소속 회원 400여 명은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에서 수확을 앞둔 1,200평의 논(벼)을 정부의 쌀농정에 항거하여 불태우다. 농민들은 정부에 대해 ○나락실질 생산비 20만원 보장 ○나락 1,000만 섬 매입 ○농민 재해물량 특별매입 등을 요구하며 당국의 대책이 없으면 나락 불태우기를 계속하겠다고 밝힌다.

소식자발송 준비 작업이 김래곤 모성용, 소수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13 -----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한국진보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단체인대회의 민주화운동 정신계승국민연대 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위원회 등 공동주최로 ‘제18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추모 의례에 이어 오종렬 행사위원회 위원장의 대회사, 박종기 추모연대 의장, 권오현 계승연대 상임대표의 추모사가 있었고, 민주노총 박정문 부위원장, 전농 문경식의장, 전민련 김흥현 회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등이 각 부문 투쟁사를 하다. 이어 지민주주의 추모노래, 한청 이승호 의장과 한국여성 연대윤금순 대표, 전국 장애인철폐연대 김병태대표가 결의문을 함께 읽다. 이어 강민조, 배은심등 유족 대표의 인사말, 영상상영, 민족 춤패 ‘출’의 추모공연이 이어지다. 마지막으 유가족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분향현화로 행사를 모두 마침.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안병길, 소수영 한찬욱, 김래곤 임미영, 김지영 송창학, 모성용, 송지영 권오현 등 함께 하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가 ‘2007 남북정상선언 실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선포대회’를 가지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2007 남북정상선언’ 2항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

는 합의에 주목하다.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공동대표의 대회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 등의 결의발언이 있었고, 한총련 류선민 의장, 한대련 김지선 의장이 투생선언문을 낭독하다. 선포문 '2007정상선언' 2항의 내용은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냉전적 법, 제도를 하루 빨리 청산할 것을 문서로 확약한 것"이라며 "누구나 인정하듯이 냉전적 법과 제도의 앞자리에는 항상 국가보안법이 자리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제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끝장내자"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힘차게 선포한다"고 밝히다.

15

☞ 용산한미연합사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실천연대 공동으로 '미국의 부당한 전쟁연습 비용분담요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오혜란 평통사미군문제팀장, 이경원 범남본 사무처장의 결의발언과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문에서는 '미국의 전쟁연습 비용분담요구는 우리 국민을 붕으로 아는 날강도 같은 주장'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다.

☞ 후원회소식지 192호 1010부의 발송이 있었음.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 19차 연도 제6차 운영위원회를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열다. 서화전보고, 일반활동 보고, 재정 보고 등이 있었고, 논의 안건에서는 '북녘 큰돌파해돋기 문제, 2007 회원 역사기행 등 논의의결하다.

16

☞ 서울인사동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등 9개 단체 공동주최, 민족문학작가회의, 민변, 민교협 주관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가 열리다. 서울대김세균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되고, 그간 이뤄진 남북한 간 각종 교류·협정들과도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규정하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승교 변호사, 무소속 임종인의원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음. 토론회 후 오후 4시 20분 서울 광화문 KT(한국통신)까지 행진하다. 이어 교수, 언론인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지식인 행동의 날' 집회에서는 민교협 조돈문 상임의장,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한용진 사무총장,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 등 폐지촉구발언이 있었음. 이날 지식인들은 성명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협력관계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는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이어 "한반도가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악용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긴급한 문제"라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다.

☞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제정연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공동으로, 그리고 국회 이영순의원실, 최재천의원실 후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관 해체,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이영순의원원의 인사말,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공동대표의 여는 말, 이덕우 변호사의 공안기관 만민관법피고고서 '없어야 한다' (보안수사대 편) 발행경과 보고, 권오현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반대 각계선언 기자회견'을 열다. 각계 대표 368명 이름으로 된 파병반대 선언에서는 정부의 파병연장 움직임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파병연장 중단과 자이툰부대 즉각철군을 촉구하다.

17

☞ 여의도국회 인근국민은행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원로 및 대표인사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종교, 학계, 여성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의료보건계, 시민사회, 인권단체, 민중·통일 진영 등 182명의 각계 원로 및 대표인사들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이번 '2007정상선언' 2항에서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며 법·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로 한 점에 주목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다. 이어 "냉전적 법과 제도의 앞자리에는 항상 국가보안법이 자리하고 있다"며 "한법 위의 법으로 만민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자 반평화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하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정일용 한국기자협회 회장, 허영구 민주노동총부위원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18

☞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뉴코아 이랜드 공대위 주최로 '경찰의 불법 폭력 연행 규탄 및 국가위원회 진정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련 집행간부 사회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의 여는 말, 안은지 덕성여대 학생의 폭력연행과 불법 구금 사례발표, 이랜드면목동 홈에버조합원의 사례발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면목점에서 강제 연행된 학생 55명의 경찰청장 제소 진정서를 권오현회장과 학생대표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시키다.

☞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81회 목요일집회를 열다. 이영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공동의장의 정상회담 내용의 역사성발언과 국가보안법폐지촉구발언, 임기란 전상임의장의 양심수성방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19

☞ 이북 로동신문은 19일자에서 조선중앙통신 18일발을 빌려 "윤이상 생일 90돌 기념 음악연구토론회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한 것으로 통일뉴스가 보도하다. 통신은 토론자들이 "윤

이상선생이 세계적인 작곡가일 뿐 아니라 조국과민족을 위해 한생을 바친 애국자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사건과 그가 창작한 음악 작품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으며 또한 "윤이상선생의 애국 애족적인 음악활동과 그의 작품들에 구현된 민족애의 정신, 세계음악계의이목을 끄는 독특한작곡가법과 연주가법 등을 과학이론적으로 깊이 있게해설하였다"고 토론회내용을 소개하다.

개성 학생소년군 전 체육관에서 있었던 세계 여자 복싱 평의회(WBCF) 수퍼플라이급 타이틀전(10R)에서 현 챔피언인 아나마리아 토레스(멕시코)에 도전한 이복의 류명옥(상업체육관) 선수가 2-1 판정승으로 챔피언 벨트를 되찾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다. 이 타이틀전에서는 남북응원단이 함께 류명옥선수를 응원하여 우리 거리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보다 앞서 진행된 제6차 남북복싱대회에서는 북측 류영심(4.25체육관) 선수가 밴단급 논타이틀전에서 국제여자복싱협회(IFBA) 플라이급 전 챔피언 최신희(성남체육관) 선수를 TKO로 이기는 등 북측선수가 4경기를 모두 휩쓸었다고 하다.

서울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가 'SPI 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SPI 폐기를 촉구하며 1일 농성에 들어가다. 평통사 유영재 미국 문제담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는 작통권을 기만적으로 환수하고 다 죽어 있는 유엔사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과정에서 사사건건 미국이 간섭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다. 평택반대위 오두회 공동집행위원장도 "평택미군기지 확장 착공식에 SCM 이후 미국방관과 한국 국방장관, 노무현 대통령이 올것이라는 말이 설왕설래 나오고 있다"며 "대추리 주민들이 피땀 흘린 그 땅을 밟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모습은 슬프고 처참한상황"이라고 개탄하다.

그는 "이런 계획들은 몇 십 년 전부터 있었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SPI든 SCM이든, 국방과 관련된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강조하다. 다함께 김택업활동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다.

이들은 실천연대 권오창상임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회의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관찰하는 구실을 해왔다"며 "6자회담의 진척과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선언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SPI회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다. 아울러 △작전통제권 온전한환수와 유엔사 해체 △이라크, 아프간파병연장 중단 △정세변화를 반영해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 등을 주장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동자의 힘 다함께 민변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등이 공동주최하다.

인사동음식점에서 음식로감시롱(으뜸일꾼 이현근) 10월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이 밀렸던 이야기기도 나누고

특히양심수 후원회 2007년 회원역사기행에 적극참여하기로 뜻을 모으다.

6.15 한마음통일산악회 주관 제3차 산행이 도봉산에서 있었음. 도봉산표지판 앞에서 모여 광릉사를 지나 도봉산계곡을 따라 올라 중턱의 너른 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이정태의 경당 시범을 따라몸을 풀고 같은 자리에서 각 참가단체별 소개가 있었음. 양심수후원회, 범민련후원회, 사월혁명회, 통일광장, 통일뉴스 등 모두 50명이 함께 하다. 86세의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 84세의 변숙현 선생님 등 고령에도 불구하고 다락능선 정점에 못미쳐 청룡사 터까지 모두 거뜬히 오르다. 넓은 터를 잡아 점심식사를 한 다음, 모성용양심수후원회 윤영위원 진행으로 이정태 산악대장이 지도하는 몸풀기 시간. 소속단체 별 소개시간에 이어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종일 사무처장의 한미관계, 북미관계에 관한 산상강연이 이어지다. 김사무처장은 한미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과 침략동맹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조국반도에서의 통일정세전망과 관련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긍정적으로 진전되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역행하고 있다고 밝히다. 결론적으로 한미관계의 침략동맹화를 청산하고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른 민족자주와 민족공조로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다. 또한 작전통제권의 즉각환수와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거투쟁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하다.

강연이 끝나고 만경대까지 오를 수 있는 분들은 오르고 선생님들 몇 분과 회원들은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다 임구의 공터에서 다시 만나 기념촬영을 하다. 근처에서 사는 소가수선생님과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호박 수제비와 수육으로 임구 팔각정에서 뒷풀이를 하며 산행 평가를 듣고 산행을 마치다.

강담선생님, 김교영선생님, 김영승선생님, 이해옥선생님, 류종익선생님, 변숙현선생님, 송세영선생님, 신동철선생님, 조순탁어머님, 권오현 강덕환, 김재선, 신현익, 나순석, 송창학, 이병진, 이봉주, 김래곤, 모성용, 박옥경, 신형수, 리정애, 이용준, 송지영 등 함께 하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주최로 '2007년 정세강연' 및 류근삼선생 시집 '황새울' 출판기념회가 열리다. 오종렬 진보연대 공동대표, 이규재 범남본 의장,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 권오창 실천연대대표, 노준선 사월혁명회 상임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 축사와 격려사가 있었고 정세강연회에서는 이기형 민족시인의 '8.15 이후 정세와 오늘의 남북관계' 문경환 민권연구소 연구위원의 '남북정상회담이후 한반도 정세전망' 등 발제가 있었고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의 결의발언이 있었음. 이어 류근삼선생(대구·경북의장)의 시집 '황새울' 출판기념회에서는 김규철 범민련 서울시 연합 명예의장의 저자소개, 송경동 시인의 서평과 여러 젊은 시인들의 시낭송에 이어 류근삼선생의 인사말씀등이 있었음.

자이툰부대 1년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의 대

국민당화문'과 관련 파병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자이툰부대 철군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평화군축센터팀장 등이 자이툰 부대를 위해 안 완전철군을 촉구하다.

24

● '일심회 가족대책위'를 비롯해 '국가보안법폐지와민주노동당 음해 공작분쇄 대책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일심회 사건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대책위'를 비롯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일심회 사건 1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사회를 맡은 민주노동당 김동원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일심회 사건을 두고 "수구공안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민주노동당을 음해하고 여론재판을 시도한 공안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주요혐의가 무죄로 판명되면서 일심회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다. 일심회 사건 변호를 담당한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장이 나서서 간첩단이라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여론몰이를 주도했지만 일심회는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하다.

● 피해자 가족들도 구속자 이정훈 씨 부인 구선옥 씨가 남독한 글을 통해 "무엇이 국가가 일이고 무엇이 간첩행위인지 명확한 증거도 없이 혐의만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이번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라"고 촉구하다. 이들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이 남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합의한 만큼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임기 중에 폐지하라"고 촉구하다.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발전위)는 지난 2004년 11월 발족이래 조사한 내용을 망라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히다. 종합보고서는 「과거의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제하의 총 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1권은 ①위원회 설립과 활동 ② 인민혁명당 민청학련 사건 ③ 동백림사건 ④ 김대중납치사건 ⑤ 김형욱 실종사건 ⑥ KAL 858기 폭파사건 ⑦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 7개 개별사건 조사결과이고, 45.6권은 정치, 사법, 언론, 노동, 학원 간첩 분야에서 지난 시절 중앙정보부가 통제, 개입, 사찰해온 행적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고 하다.

● 민가협 사무실에서 민가협운영위원회를 열다. 활동보고와 재정보고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열아홉번째 인권 콘서트 계획등 협의하다.

25

● 남북적십자 단체는 판문점에서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제7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후보자에 대한 생사확인 보고서를 교환하다. 북측이 의뢰

한 100명 중 84 가족 609명의 재남 가족 생사와 남측이 의뢰한 100명 중 70가족 326명의 재북가족 생사를 확인하다.

●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손태영 지회장이 지난 6월 한미 FTA 반대 부분파업과 관련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수감되다.

● 국방부가 밝힌 병역거부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07 상반기 중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의무자는 29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입영 대상자 273명, 보충역 대상자 21명이며 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290명, 전쟁반대 등이 4명이라고 하다. 또한 14명은 1년 6월~2년 등 실행에 1명은 기소유예, 279명은 재판 계류 중이다. 연도별 병역거부자는 2001년 379명, 2002년 825명, 2003년 561명, 2004년 755명, 2005년 828명, 2006년 781명 등이다.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682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공동의장, 서경순 전 상임의장 등 이른바 '일심회 사건 양심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다.

26

●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 11층 회의실에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주최로 박영두열사추모집 "그라운 것은 지상 위에 있었네" 출판 기념회가 열리다. 계승연대 소속 단체회원들과 박영두 열사유족, 박영두 열사의 옥중동지 등 40여명이 함께하여 이병주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현 상임대표의 인사말,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중기 추모연대의장, 강민조 유가족대표, 정동익 동아투위대표 등 축사와 이병주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 이덕우 변호사의 민사소송경과보고, 옥중동지의 소회말, 최효은 민중기수의 축가, 정중석 추모집 편집위원의 추모의사 낭송 등이 있었음. 이어 권오현 상임대표가 박영일 열사의 만행에게 추모집 헌정이 있었고 박영일 씨의 유족 인사말이 있었음.

27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모란 민주통일문화제조직위원회 주최 (사)민족문제연구소 수도권 지부연합, 모란 민주통일 문화제 남양주시민추진위원회 등 주관, 추모연대, 계승연대 등 후원으로 '2007 모란민주통일 문화제'를 열다. 사전 행사로 풍물패 '허울림'의 길놀이, 살풀이춤, 노홍철 스님의 단가, 한남석 여울 한마당원장의 가야금 연주, 대금연주 등이 있었고 추모제 본 행사는 문민기 민족문제연구소 지부장사회로 추모의례, 경과보고에 이어 권오현 문화제조직위원장의 인사말, 배은심 유가족 대표의 인사말 윤호중 구리시국회의원의 추모사, 안택상 시인의 추모시 낭송이 있는 다음, 열사 묘역 헌화 등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문화제조직위원회 주최로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남양주시청에서 열고,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과 김성균 한신대 교수 등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음.

● 단체 협약체결과 노조설립을 인정하라며 130일 넘게 파업을 벌여왔

던 인천 영진산업 정해진조합원이 회사의 노조 탄압에 항거분신 끝 내숨을 거두다. 이 날 조합원 500여 명은 회사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고 규탄하기 위하여 인천 갈산역에서 영진산업사 앞까지 행진하여 회사로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을 못하고 대치상태에 있는 동안 정해진 조합원이 1시 50분 경 온 몸에 불을 붙이고 '동지들 힘내라! 사창구속하라!' 외치며 쓰러지다. 조합원들이 불을 끄고 부천순천 병원에서 응급치료하고 영등포 성심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을 시도했으나 끝내 패혈증으로 숨을 거두다.

28 -----

서울역 광장에서 이라크 파병 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자이툰 부대와 병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공동 반전행동 집회를 열다. 소속단체회원 등 5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오종렬 공동대표의 대회사,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등 자이툰부대 철수 촉구 발언이 있었고 광화문까지 반전평화행진이 있었음.

29 -----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청와대 분수공원 앞에서 '사상 양심과 학문의 자유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강정구교수 무죄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하다. 강정구교수 공동대책위는 강정구교수의 항소심 4년구형이 있는 뒤선고공판이 열리는 11월 3일까지 매일 11:30~12:30분까지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음.

지난 9일 철폐되었던 한미 FTA - 범국민 박석은 공동집행위원장과 주재준 상황실장이 한미 FTA 저지 투쟁과 관련, 집시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다.

여의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코스콤) 비정규직부 조합원 47명이 단 체교섭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기습 점거했으나 사측의 용역과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강제 연행되어 8개 경찰서에 분산 배치되어 조사를 받다. 강제연행과정에서 용역의 폭행으로 7명이 크게 다치고 5명이 입원치료를 받다. 한편 코스콤 정문 앞 8m 높이 망루를 쌓고 1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이유로 조합원은 위급한 증세를 보여 이 날 녹색병원으로 이동 치료를 받다.

30 -----

6자회담 산하 '경제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제3차 회의'가 29~30까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다. 회의에는 남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 기획단장, 북측에서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무부장, 미국의 커트 롱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경제담당관, 중국 천나이징 외교부 조선반도 담당대사, 러시아 올렉 다비도프 외무부 아주치국 선임참사관, 일본 아카호치 다케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한일경협 과장등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다. 2일 동안 회의에서는 2.13 합의와 10.3 합의에서 채택된 중유 100만 톤 상당 지원 중유 가운데 이미 지원된 5만 톤을 제외한 45만 톤은 각국이 차례로 이북에 제공하고 50만 톤 분을 금액으로 환산 에너지관련 설비 자재 등을 제공

하기로 하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전용용님을 광주교도소에서 장 소이동접전하였습니다. 임미영, 소수영, 임선영 함께 하다.

청진동 소재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과 김호현 부회장이 우리 거대해나되기 운동본부 최병모 이사장과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에게 북녘 큰물 피해성금으로 1천 만원을 전달하다. 양심수후원회는 그 동안 모은 큰물피해모금액과 지난 9.14~16 열었던 양심수후원회 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에서의 수익금 일부를 보태어 북녘 큰물피해성금으로 보내기로 19차년도 6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었음.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등 30여 명이 함께하여 제73차 평화군축회의를 열다. 유영재 미군문제담당장과 오해란 평화군축담당 등이 완전한 작전통제권 환수 촉구와 미·일의 미사일 방어망(MD) 통합 강요 등을 강력히 규탄하다. 참가자들은 MD 체계 강요분쇄 일환으로 모형 미사일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갖고 마쳤다.

이북 화물선 대흥단호(6,900톤)가 아프리카 연한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들에게 한 때 납치되었으나 국제해사국(IMB)에 구조를 요청. 미 해군 구축함 일리얼스호가 출동하는 동안, 대흥단호 선원들이 감춰두었던 무기로 해적들을 제압해 조정실과 기관실을 다시 장악했다. 고 인론들이 보도하다. 해적과의 결투에서 부상당한 선원들은 미국 군함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고 하다.

31 -----

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민변과거사청산위원회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공동주최로 '인권침해분야 과거사청산작업의 평가와 향후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다. 민변 이유정 과거청산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이명춘 진실화해 과거사청리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의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분야 과거사 청산작업의 평가', 한홍구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의 '국정원 과거사 청산작업의 평가', 이완범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위원의 '경찰청 과거사 청산작업의 평가', 염규홍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과장의 '국방부 과거사 청산작업의 평가, 김현태 과거청산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의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향후 과제' 등 발제가 있었고 김동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박용일 국정원발전위원회 위원 김희수 전북대교수,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연구원, 송호진 의사사유가족대책위 간사 등의 토론이 있었음.